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6
----------	-------

발의연월일 : 2022. 12. 2.

발 의 자 : 최영희 · 유경준 · 하영제
김학용 · 김승수 · 임이자
이채익 · 김성원 · 김태호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이하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유족(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p><u>제22조의2(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이하 “사자(死者)의 개인정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u></p> <p><u>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유족(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u>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u>④ 그 밖에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